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등록금심의위원회 6차 회의		일 시	2018.1.31.(수) 14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정승렬(위원장), 김태호, 이호선, 김인준, 이승현, 김남균, 원윤성 (이상 7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 예산편성 담당자: 배수현 차장(예산평가팀)		
불참위원	없음		
의 제	2018학년도 본예산(안) 심사		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는 지난 5차에 걸친 등록금 심의 결과에 따라 편성한 2018학년도 본예산(안)에 대한 심사를 안건으로 함.

2. 2018학년도 본예산(안) 심사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배포한 2018학년도 본예산(안)의 주요 편성 내용과 자금예산(안) 총괄표를 설명하고 주요 수입, 지출 항목에 대해 설명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종합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,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현재 우리대학의 종합정보시스템은 2003년에 개발한 것으로 새로운 업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수요와 구성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고 시스템 보안 관련 문제도 있는 만큼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.
- 최근 타대학들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이 개편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대학의 시스템의 모듈 프로그램 수를 감안할 때 20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임.
- 종합정보시스템 전반이 개편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수강신청 시 불편 사항도 개선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정전입금이 2017년 추경예산 대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 신입교원 총원으로 교원보수가 증가하는데 그 인원만큼 법정전입금도 증가해야하는 것 아닌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추경예산의 법정전입금은 다소 여유있게 편성한 금액이며 2018학년도 법정전입금은 교수 및 직원 수의 변동을 예측하여 작성한 수치임. 법정전입금 산출은 2018학년도 신규 임용 교원 중 전임교원의 증감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규모가 2017년 추경 대비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배수현 차장

-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적립해야하는 금액은 예년과 비슷하며, 다만 등록금 수입의 부족에 따라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줄어든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건물 신축에 사용되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신축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걸쳐 비용을 지급하게 되므로 그에 맞게 2018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과학관 등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올해부터 신축과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과학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문제는 없는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리모델링을 일부 공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. 향후 관리처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생들의 공간 사용권 보장을 위해 신축 건물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가 필요함.
- 과학기술대학이 신축 건물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공간사용에 대한 안이 나오면 관련된 단과대학이나 학부(과) 구성원들과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임.
- 현재 확답은 어려우나 추가 교사 확충 계획 수립 시에도 과학기술대학이 이동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. 공간 수요가 가장 많은 단과대학이 과학기술대학임. 하지만 전체가 다 이동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CK-II, LINC+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한 수입, 지출 규모가 2017년 추경 대비 감소하였는데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연차평가에 따라 지원금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8학년도 일반대학원의 학생 수 감소를 예상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일반대학원 각 학과로부터 예상 등록 학생 수를 수합한 결과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, 이는 작년 12월말 까지 2018학년도 1학기 학생 모집 현황을 감안한 수치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예술대학 및 조형대학 학생들이 졸업 필수 요건인 졸업전시 또는 공연, 연주 등 준비에 학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.
- 단과대학의 예산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단과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만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우리 대학은 단과대학별 학문의 특성과 교육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계열별 등록금을 차등 징수하고 있음. 그리고 각 단과대학의 학생 규모와 차등 등록금을 반영하여 단과대학 자율예산을 편성하고 있음.
- 따라서 단과대학의 특별 행사 또는 공연, 전시 등의 사업은 단과대학 자율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의 기본 방침이며,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재정적 상황과 형평성 원칙을 감안하여 특정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.
-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실기대회,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발생한 수익을 재학생 행사 비용에 투입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졸업 전시, 공연의 비용과 관련해서는 단과대학 및 학부(과)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해당 사항은 단순히 예산 지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조형대학, 예술대학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여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조형대학, 예술대학의 학생 대표와 학장님 등 학교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.
- 교내 장학금의 증액 내역에 생활비 장학금 확대 규모도 반영된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조형대, 예술대 현안에 대해 각 단과대학과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학생처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음.
- 교내 장학금에는 생활비 장학금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며 학생 측과 학생처가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규모를 논의해야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차기 회의에서 2018학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를 더 준비해 오겠음.

3. 폐회선언

- 차기 회의는 2018.2.5.(월)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정하고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8. 1. 31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

위원장 정 승 렬

위 원 김 인 준

위 원 이 호 선

위 원 이 승 현

위 원 김 남 균

위 원 원 윤 성

위 원 김 태 호